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트럼프, 영양표시, 라벨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트럼프, 영양표시, 라벨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새로운 영양표시법, 트럼프 정부에 의해 연기되나”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새로운 영양표시법, 트럼프 정부에 의해 연기되나

1990년 미국에서 영양표시 교육법이 통과된 이래로 영양표시는 미국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지표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표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영양표시 내 방대한 정보를 영양 전문가처럼 직관적으로 해석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2016년 영양표시 개정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제안된 영양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한 글씨로 강조되는 칼로리와 현실적인 제공량 : 기존의 제품에 표기된 영양 표시 면을 보면 정확한 제공량을 알기 힘들다. 새로운 라벨 기준 안은 ‘머핀 1개 제공량’과 같이 제조업자가 실생활에 맞는 영양 표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칼로리 정보 또한 눈에 잘 띄는 크고 굵은 글씨로 나타나도록 한다.

2)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 : 아이스크림이나 감자 칩처럼 여러 번 나눠서 먹기도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제품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특정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기한다. 두 가지 모두 표시된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한 번에 다 먹거나 마셨을 때의 영양 정보와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3) 당의 세부 정보 : 기존의 라벨에서는 천연 당분(우유, 요구르트, 과일, 과일주스에 포함)과 가당(사탕수수설탕, 포도당, 유기농 사탕수수즙, 시럽, 액상과당에 포함)을 분류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새롭게 바뀌는 라벨에서는 이 둘을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가당 섭취는 줄이고 천연 당분처럼 몸에 좋은 당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설탕은 무조건 해롭다는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4) 업데이트 되는 하루 섭취량 : 하루 섭취량은 하루 동안 권장되는 영양소의 기준치를 나타내며 라벨에 표기된 하루 섭취량의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해 쓰인다. 그러나 기존의 라벨 정보는 의학연구소의 권장량과 2015-2020년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라벨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2,400에서 2,300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5) 새로운 비타민과 미네랄 :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칼륨과 비타민 D를 언급, 해당 영양소들을 적게 섭취한다고 한다. 새로운 라벨에서는 칼륨과 비타민 D가 필수적으로 표기될 것이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에 대한 표기는 선택적으로 바뀔 것이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이러한 영양표시 변화는 2018년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 개정된 규정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에 동반되는 몇몇의 규제 지침 관련 서류들은 아직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식품정책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권 때 승인된 개정안들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나타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선된 영양 표시 규제 동결을 선언한 상태이다. 규제 동결로 인해 기업의 새로운 라벨 적용 준수 기한이 현재 정해진 2018년 7월에서 더 미루어 질 수도 있다. 또한 규제 동결로 인해 식이섬유와 가당 표기법에 관한 영양 표시 법안 상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향후 미국 영양표시 개정과 관련해, 미국내 동향과 세부 개정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수출 제품 라벨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